고1국어
미래엔

3(4) 교습 갈래의 이해와 글쓰기(상기) - 수능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이면 먼저 선무문(宣武門) 안으로 가서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내가 연경(燕京)에서 본 코끼리는 열여섯 마리였는데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금 열하(熱河) 행궁(行宮) 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보니, 온몸을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하였다.

예전에 동해 바닷가를 새벽에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다. 무수히 많기도 하고 모두 집채만큼 크기도 하여,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 버렸다. 지금 열 걸음 거리에서 코끼리를 보며 생각해 보건대,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했다.

[A] 그 몸체를 생각해 보면 소의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 빛깔,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다. 귀는 구름을 드리운 듯하고 눈은 초승달 같으며, 두 개의 어금니 크기는 두 아름이나 되고 키는 한 장(丈) 남짓이나 되었다.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구부렸다 폈다 하며 굼벵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한다. 코끝은 누에의 끝부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족집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둘둘 말아 입에 집어넣는다.

어떤 사람은 코를 부리라고 착각하고 다시 코끼리의 코를 찾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가 다섯 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눈이 쥐와 같다고 하지만, 이는 대개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대체로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어진 성품은 바로 이 눈에서 나온다.

강희 황제 때였다. 남해자(南海子)에 사나운 범 두 마리가 있었다. 키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길을 들이기가 어렵자 황제가 노하여 범을 코끼리 우리에 가두게 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크게 놀라 코를 한 번 휘두르는 바람에 범 두 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 코끼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을 죽인 셈이 된 것이다. 코끼리는 단지 범의 냄새를 싫어하여 코를 휘둘렀을 뿐인데, 거기에 범이 잘못 맞았던 것이다.

아,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 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그러나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형체로 말하자면 천(天)이요, 성정(性情)으로 말하자면 건(乾)이며, 주재(主宰)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상제(上帝)요, 오묘한 작용으로 말하자면 신(神)이라 하니, 그 이름도 다양하고 일컫는 것도 제각기이다. 또 이(理)와 기(氣)를 화로와 풀무로 삼고, 만물을 두루 펴내는 것을 조물이라고 하니, 이는 하늘을 마치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망치와 끌, 도끼와 칼 등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혼돈이란 그 빛이 검고 그 모양은 흙비가 내리는 듯하여, 비유를 하자면 새벽이 되었지만 아직 동이 트지는 않은 때에 사람이나 사물이 분별되지 않는 상태와 같다. ⓐ 나는 알지 못하겠다. 캄캄하고 흙비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 냈을까. 국숫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진다. 무릇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일 뿐이니,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뿔이 있는 것에게는 윗니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

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B]
감히 묻는다.
"이빨을 준 건 누구인가?"
사람들은 대답하리라.
"하늘이 주었다."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빨을 주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씹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뜨락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해 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 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댈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에게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바 이치가 아니다.

대저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 배나 더한 것임에랴.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象)' 자를 취하여 지은 것도 만물의 변화를 궁구(窮究)하려는 까닭이었으리라.

-'상기'

1. [A]에서 사용된 표현 방식이 쓰인 것은?

①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마는,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② 강에 은현의 비가 내린다. / 빗방울은 물에 번지면서 / 발레리나가 무대 인사를 하듯 / 다시 튀어 올라 광채를 짓고 / 저 큰 흐름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 강은 이제 박수 소리를 낸다.

③ 혼자라도 기쁘게나 가자 /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④ 쫓아오던 햇빛인데 / 지금 교회당 꼭대기 /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 괴로웠던 사나이, /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 처럼 /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⑤ 가시는 걸음걸음 /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2. [A]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붉은 빛이 더욱 붉어지니, 마주 선 사람의 낯과 옷이 다 붉더라. 물이 굽어져 올려 치니, 밤에 물 치는 굽이는 옥같이 희더니, 즉금(이제 곧, 지금 당장) 물 굽이는 붉기가 홍옥(紅玉) 같아 하늘에 닿았으니, 장관(壯觀)을 이룰 것이 없더라.

① [A]와 <보기> 모두 대상을 묘사하고 있는 글이다.
② [A]와 달리 <보기>에는 작가의 체험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③ [A]와 <보기> 모두 작가의 생각이나 감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A]와 <보기> 모두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다.
⑤ [A]는 비유적 표현이 드러나지만 <보기>는 비유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3. 윗글과 <보기>는 작가인 연암 박지원이 유사한 가치관을 갖고 쓴 작품이다. 두 작품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오늘 나는 밤중에 물을 건너는지라 눈으로는 위험을 볼 수 없으니 그 위험은 오로지 듣는 데만 쏠려 귀가 바야흐로 무서워 부들부들 떨면서 그 걱정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오늘에서야 도(道)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도다. 마음에 잡된 생각을 끊은 사람, 곧 마음에 선입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귀와 눈이 탈이 되지 않거니와, 귀와 눈을 믿는 사람일수록 보고 듣는 것을 더 상세하게 살피게 되어 그것이 결국 더욱 병폐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중략)

소리와 빛깔이란 내 마음 밖에서 생기는 바깥 사물이다. 이 바깥 사물이 항상 사람의 귀와 눈에 탈을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똑바로 보고 듣지 못하게 만든다. 더구나 한 세상 인생살이를 하면서 겪는 그 험하고 위태함은 강물보다 훨씬 심하여, 보고 듣는 것이 문득문득 병폐를 만듦에 있어서랴. 내가 장차 연암협 산골짝으로 돌아가 다시 앞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이를 시험해 보리라. 또한, 자기만 유익하게 하는 처신에 밝고, 자신의 총명만을 믿는 사람에게 이를 가지고 경고하노라.

① 윗글의 '나'와 <보기>의 '나'는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다.
② 윗글의 '나'와 <보기>의 '마음에 잡된 생각을 끊은 사람'은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다.
③ 윗글의 '나'와 <보기>의 '처신에 밝고, 자신의 총명만을 믿는 사람'은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다.
④ 윗글의 '사람들'과 <보기>의 '나'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다.
⑤ 윗글의 '사람들'과 <보기>의 '귀와 눈을 믿는 사람'은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다.

4. [B]에서 작가는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어떤 표현법을 사용하였다. 다음 중 그 표현법을 사용한 사례로 적절한 것은?

①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②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③ 우리는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까? 그것은 자연이 곧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④ 세계 보건 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이 포함된 음료에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에 비례하는 소비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⑤ 예를 들어, 'ᄀᆞᄅᆞᆷ, 뫼, 온, 즈믄'과 같은 고유어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한자어인 '강(江), 산(産), 백(百), 천(千)'에 밀려 현대 국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5. 윗글의 ⓐ와 <보기>의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혹 빌려서 타는데,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곧 내려 걸어가므로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 발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채찍질하여 고삐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비로부터, 지어미는 지아비로부터, 비복(婢僕)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迷惑)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백승(百乘)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맹자가 일컫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하였다. 내가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서 차마설을 지어 그 뜻을 넓히노라.

① ⓐ와 ⓑ 모두 유추의 방식을 활용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② ⓐ와 ⓑ 모두 경험을 바탕하고 통념을 깨는 자신의 철학을 전달하기 위해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다.

③ ⓐ와 ⓑ 모두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이끌어내고 있지만, 대상에 대해서 상반된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④ ⓐ는 심리의 변화를 통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반면, ⓑ는 심리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⑤ ⓐ는 여러 사례를 분석하여 가설을 세운 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6. ㉮와 <보기>의 ㉯의 말하기 방식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자로 이름 난 ㉯ 선귤자와 인분을 나르는 엄 행수 사이에는 친교가 있었다. 이를 마땅치 않게 여긴 제자가 하루는 그 까닭을 스승에게 물었다. 선귤자는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중략) "본래 사람의 숭이 떨어지면 입안에 구슬을 넣어 주는 것도 깨끗이 가란 뜻일세그려. 저 엄 행수가 똥을 지고 거름을 가져다가 그걸로 먹고 사는 것이 지극히 깨끗지 못하다고 보겠지만 그 생활은 지극히 향기롭고, 몸을 굴리는 것이 지극히 더럽다고 보겠지만, 의리를 지키는 점은 지극히 높은 것일세. 그 뜻을 미루어 생각건대 비록 굉장한 벼슬자리도 그를 움직이지는 못할 것일세. 이로 본다면 깨끗한 가운데도 깨끗지 못한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일세. 내가 먹고 입는 데서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다다르면 항상 나만도 못한 처지의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엄 행수에 이르러는 견디기 어려운 처지란 것이 없네. 진심으로 도적질할 마음이 없기로 말하면 엄 행수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네. 이 마음을 더 키워 나간다면 성인(聖人)도 될 수 있을 것일세.(후략)

① ㉮와 ㉯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② ㉮와 달리 ㉯는 특정한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③ ㉮와 달리 ㉯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와 달리 ㉮는 설의적 표현을 반복하여 상대측 의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⑤ ㉯와 달리 ㉮는 상대방의 대답을 유도하여 상대측이 스스로 깨달음을 찾도록 하고 있다.

7. <보기>와 윗글의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떤 손[客]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제 저녁엔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에도 너무 참혹하여 실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를 잡아서 그 불 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손이 실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이는 미물이 아닙니까? 나는 덩그렇게 크고 육중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하는 말인데, 당신은 구태여 이를 예로 들어서 대꾸하니, 이는 필연코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대들었다.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무릇 피[血]와 기운[氣]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 손가락만이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몸에 붙어 있는 큰 지절(支節)과 작은 부분이 골고루 피와 고기가 있으니,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놈은 좋아할 턱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서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붕(大鵬)과 동일시하도록 해 보십시오. 연후에 나는 당신과 함께 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① [B]의 '사람들'과 <보기>의 '손'은 현상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
② [B]의 '나'와 <보기>의 '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들어 사람들을 일깨우고 있다.
③ [B]의 '코끼리'와 <보기>의 '이'는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써 사용되었다.
④ <보기>와 [B]는 서로 대비되는 대상들을 견주어 필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⑤ <보기>의 '개(犬)'는 [B]의 '코끼리'에 <보기>의 '이'는 [B]의 '소, 말, 닭' 등에 대응된다.

8. 윗글과 <보기1>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1>

손[客]이 주옹(舟翁)에게 묻기를,
"그대가 배에서 사는데, 고기를 잡자 하니 낚시가 없고, 장사를 하자니 돈이 없고, 진리(津吏) 노릇을 하려 해도 물 가운데만 머물러 있어 왕래(往來)가 없구려. 변화를 헤아릴 수 없는 물에 조각배 하나를 띄워 가없는 만경(萬頃)을 헤매다가, 바람은 미친 듯이 불고 물결은 놀란 듯이 몰려와 돛대는 기울고 노까지 부러지면, 정신과 혼백(魂魄)이 흩어지고 몸은 두려움에 싸여 생명이 지척(咫尺)에 있게 될 것이로다. 이는 지극히 험한 곳을 밟고 지극한 위태로움을 무릅쓰는 일이거늘, 그대는 도리어 이를 즐겨 오래오래 세상을 멀리하고 돌

아오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주옹이 말하기를,
"아아, 손은 생각하지 못하는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다잡기와 느긋해짐에 일정함이 없어서 평탄한 땅을 밟으면 태연하여 느긋해지고, 험한 지경에 처하면 전율하여 두려워하는 법이다. 전율하여 두려워하면 마음을 다잡고 든든하게 살지만, 태연하여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로이 죽게 되나니, 내 차라리 험한 곳에 처하여 항상 조심할지언정, 편안한 데 살아 스스로 흐트러지지 않으려는 것이다.
(중략)
또, 인간 세상이란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요, 인심이란 한바탕 거대한 바람이니, 하잘것없는 내 한 몸이 아득한 그 가운데에서 표류하는 것은 마치 한 잎 조각배가 만경창파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가 배에서 사는 것으로 사람 한 세상 사는 것을 보건대, 안전할 때는 환란을 생각지 않으며,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을 돌보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손은 어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하다 하는가?" (후략)

<보기2>
ㄱ : 고전(古典)을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ㄴ : 비유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ㄷ : 문답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이끌어내고 있다.
ㄹ :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통해 작가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 윗글과 <보기>의 내용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만리장성은 북으로 뻗었는데, 남쪽으로는 아득히 넓은 바다가 벅차 있고, 동쪽으로는 큰 벌판에 닿았고, 서쪽으로 산해관 안을 굽어본다. 둘레를 둘러보기에 우람찬 곳으로는 여기만 한 데가 없겠다. 산해관 안에 수만 집이 들어차 있는 시가와 누각들이 손금 들여다보듯 똑똑히 보였다. 바디 위에 뾰족하게 하늘을 찌르고 선 봉우리는 창려현 문필봉이다.
한참이나 구경하다가 성에서 내려오자니 아무도 선뜻 내려오는 자가 없다. 벽돌로 쌓은 층층대를 까마득하게 올라왔다가 아래로 굽어보니 팔다리가 떨릴 지경이다. 대 위에 선 사람들이 다들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올라갈 때는 한 층대 한 층대 붙들고 올라가니 위험한 줄을 몰랐다가, 내려오려고 눈을 들자 뜻하지 못한 자리에 서 있으니 금방 눈이 핑 돌았다. 탈은 눈에서 생긴 것이다.
벼슬하는 자들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떠받들려 올라갈 때는 한 층대 반 층대 남보다 뒤질세라 더러는 남을 떠밀며 앞을 다툰다. 그러다 몸이 높은 자리에 이르면 겁이 나고 외롭고 위태로우나, 나아갈 곳은 한 발자국도 없고 물러설 자리는 천 길 낭떠러지뿐이다. 어디 하나 붙잡을 데가 없으니 내려오려 해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예나 오늘이나 통하는 이치이다.

① 윗글은 <보기>와 달리 문답의 논리적 전개 과정을 통해 작가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② <보기>는 윗글과 달리 성찰의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쓰였다.
③ 윗글과 <보기> 모두 작가의 여정을 통해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④ 윗글과 <보기> 모두 비유와 묘사를 통해 작가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실감 나게 전달하고 있다.
⑤ 윗글과 <보기> 모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사의 이치를 전달하고 있다.

고1국어
미래엔

3(4) 교습 갈래의 이해와 글쓰기(상기) - 서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다 빈출유형 1

표현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문답법을 활용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이면 먼저 선무문(宣武門) 안으로 가서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내가 연경(燕京)에서 본 코끼리는 열여섯 마리였는데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금 열하(熱河) 행궁(行宮) 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보니, 온몸을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하였다.

예전에 동해 바닷가를 새벽에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다. 무수히 많기도 하고 모두 집채만큼 크기도 하여,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 버렸다. 지금 열 걸음 거리에서 코끼리를 보며 생각해 보건대,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했다.

Ⓐ 그 몸체를 생각해 보면 소의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 빛깔,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다. 귀는 구름을 드리운 듯하고 눈은 초승달 같으며, 두 개의 어금니 크기는 두 아름이나 되고 키는 한 장(丈) 남짓이나 되었다.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구부렸다 폈다 하며 굼벵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한다. 코끝은 누에의 끝부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족집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둘둘 말아 입에 집어넣는다.

어떤 사람은 코를 부리라고 착각하고 다시 코끼리의 코를 찾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가 다섯 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눈이 쥐와 같다고 하지만, 이는 대개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대체로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어진 성품은 바로 이 눈에서 나온다.

강희 황제 때였다. 남해자(南海子)에 사나운 범 두 마리가 있었다. 키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길을 들이기가 어렵자 황제가 노하여 범을 코끼리 우리에 가두게 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크게 놀라 코를 한 번 휘두르는 바람에 범 두 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 코끼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을 죽인 셈이 된 것이다. 코끼리는 단지 범의 냄새를 싫어하여 코를 휘둘렀을 뿐인데, 거기에 범이 잘못 맞았던 것이다.

아,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 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그러나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형체로 말하자면 천(天)이요, 성정(性情)으로 말하자면 건(乾)이며, 주재(主宰)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상제(上帝)요, 오묘한 작용으로 말하자면 신(神)이라 하니, 그 이름도 다양하고 일컫는 것도 제각기이다. 또 이(理)와 기(氣)를 화로와 풀무로 삼고, 만물을 두루 펴내는 것을 조물이라고 하니, 이는 하늘을 마치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망치와 끌, 도끼와 칼 등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혼돈이란 그 빛이 검고 그 모양은 흙비가 내리는 듯하여, 비유를 하자면 새벽이 되었지만 아직 동이 트지는 않은 때에 사람이나 사물이 분별되지 않는 상태와 같다. 나는 알지 못하겠다. 캄캄하고 흙비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

냈을까. 국숫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진다. 무릇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일 뿐이니,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 "뿔이 있는 것에게는 윗니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감히 묻는다.

"이빨을 준 건 누구인가?"

사람들은 대답하리라.

"하늘이 주었다."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빨을 주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씹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뜨락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해 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 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댈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에게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바 이치가 아니다.

대저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 배나 더한 것임에랴.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象)' 자를 취하여 지은 것도 만물의 변화를 궁구(窮究)하려는 까닭이었으리라.

–'상기'

1. 코끼리를 표현하기 위해 Ⓐ에서 사용한 방법을 세 개 쓰시오.

2. Ⓑ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 사용한 내용 전개 방법과 그 효과를 각각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1) 내용 전개 방법

(2) 효과

3. 아래 <보기>는 고전 수필 '상기'에 대한 설명이다. 윗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각각 채우고, <보기>의 밑줄 친 문장 전체를 작성하시오.

<보기>

'상기'는 □□□을/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작가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을/를 통한 가설의 재반박 등 개성적인 문체를 사용하여 □□ 갈래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이면 먼저 선무문(宣武門) 안으로 가서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내가 연경(燕京)에서 본 코끼리는 열여섯 마리였는데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금 열하(熱河) 행궁(行宮) 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보니, 온몸을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하였다.

예전에 동해 바닷가를 새벽에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다. 무수히 많기도 하고 모두 집채만큼 크기도 하여,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 버렸다. 지금 열 걸음 거리에서 코끼리를 보며 생각해 보건대,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했다.

그 몸체를 생각해 보면 소의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 빛깔,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다. 귀는 구름을 드리운 듯하고 눈은 초승달 같으며, 두 개의 어금니 크기는 두 아름이나 되고 키는 한 장(丈) 남짓이나 되었다.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구부렸다 폈다 하며 굼벵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한다. 코끝은 누에의 끝부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족집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둘둘 말아 입에 집어넣는다.

어떤 사람은 코를 부리라고 착각하고 다시 코끼리의 코를 찾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가 다섯 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눈이 쥐와 같다고 하지만, 이는 대개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대체로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어진 성품은 바로 이 눈에서 나온다.

강희 황제 때였다. 남해자(南海子)에 사나운 범 두 마리가 있었다. 키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길을 들이기가 어렵자 황제가 노하여 범을 코끼리 우리에 가두게 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크게 놀라 코를 한 번 휘두르는 바람에 범 두 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 코끼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을 죽인 셈이 된 것이다. 코끼리는 단지 범의 냄새를 싫어하여 코를 휘둘렀을 뿐인데, 거기에 범이 잘못 맞았던 것이다.

아,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 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그러나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형체로 말하자면 천(天)이요, 성정(性情)으로 말하자면 건(乾)이며, 주재(主宰)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상제(上帝)요, 오묘한 작용으로 말하자면 신(神)이라 하니, 그 이름도 다양하고 일컫는 것도 제각기이다. 또 이(理)와 기(氣)를 화로와 풀무로 삼고, 만물을 두루 펴내는 것을 조물이라고 하니, 이는 하늘을 마치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망치와 끌, 도끼와 칼 등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혼돈이란 그 빛이 검고 그 모양은 흙비가 내리는 듯하여, 비유를 하자면 새벽이 되었지만 아직 동이 트지는 않은 때에 사람이나 사물이 분별되지 않는 상태와 같다. 나는 알지 못하겠다. 캄캄하고 흙비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 냈을까. 국숫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진다. 무릇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일 뿐이니,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

㉮ 그런데도 사람들은 "뿔이 있는 것에게는 윗니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감히 묻는다.

"이빨을 준 건 누구인가?"

사람들은 대답하리라.

"하늘이 주었다."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빨을 주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씹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A]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뜨락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해 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 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댈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에게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바 이치가 아니다.

대저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 배나 더한 것임에랴.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象)' 자를 취하여 지은 것도 만물의 변화를 궁구(窮究)하려는 까닭이었으리라.

–'상기'

4. 윗글에서 작가가 ㉮의 생각을 제시한 후,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는지 조건에 따라 서술하시오.

<조건>
• 구체적인 전개 방법과 목적을 모두 포함하여 기술할 것.
• '~함으로써 ~고 있다.'와 같은 문장의 형식으로 기술할 것.

5. [A]에서 작가가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활용한 방법(명칭만)을 쓰고(1), 작가가 주장하는 바(작가의 입장)는 무엇인지 간략히 서술하시오.(2)

6. 윗글에 사용된 표현 방식 두 가지와 그 효과를 조건에 따라 서술하시오.

<조건>
•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할 것.

7. [A]에서 사용하고 있는 글의 수사(표현) 방법을 3음절로 쓰시오.

8. 윗글 [A]와 <보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논지 전개 방식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윗글 [A]와 <보기>는 유사한 논지 전개 방식을 보인다. 둘 모두 (1) (　　)(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2) (　　)의 타파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조건>
• 각각 2어절 이내로 쓸 것.

<보기>

어떤 손[客]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제 저녁엔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

니는 개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에도 너무 참혹하여 실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를 잡아서 그 불 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손이 실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이는 미물이 아닙니까? 나는 덩그렇게 크고 육중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하는 말인데, 당신은 구태여 이를 예로 들어서 대꾸하니, 이는 필연코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대들었다.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무릇 피[血]와 기운[氣]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 손가락만이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몸에 붙어 있는 큰 지절(支節)과 작은 부분이 골고루 피와 고기가 있으니,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놈은 좋아할 턱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서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붕(大鵬)과 동일시하도록 해 보십시오. 연후에 나는 당신과 함께 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최다 빈출유형 2

내용 일치 유형의 문제로,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의 생각이나, 글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지문 정독을 반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이면 먼저 선무문(宣武門) 안으로 가서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내가 연경(燕京)에서 본 코끼리는 열여섯 마리였는데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금 열하(熱河) 행궁(行宮) 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보니, 온몸을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하였다.

예전에 동해 바닷가를 새벽에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다. 무수히 많기도 하고 모두 집채만큼 크기도 하여,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 버렸다. 지금 열 걸음 거리에서 코끼리를 보며 생각해 보건대,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했다.

그 몸체를 생각해 보면 소의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빛깔,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다. 귀는 구름을 드리운 듯하고 눈은 초승달 같으며, 두 개의 어금니 크기는 두 아름이나 되고 키는 한 장(丈) 남짓이나 되었다.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구부렸다 폈다 하며 굼벵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한다. 코끝은 누에의 끝부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족집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둘둘 말아 입에 집어넣는다.

Ⓐ 어떤 사람은 코를 부리라고 착각하고 다시 코끼리의 코를 찾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가 다섯 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

리 눈이 쥐와 같다고 하지만, 이는 대개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대체로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어진 성품은 바로 이 눈에서 나온다.

㉮ 강희 황제 때였다. 남해자(南海子)에 사나운 범 두 마리가 있었다. 키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길을 들이기가 어렵자 황제가 노하여 범을 코끼리 우리에 가두게 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크게 놀라 코를 한 번 휘두르는 바람에 범 두 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 코끼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을 죽인 셈이 된 것이다. 코끼리는 단지 범의 냄새를 싫어하여 코를 휘둘렀을 뿐인데, 거기에 범이 잘못 맞았던 것이다.

아, ㉠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 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그러나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형체로 말하자면 천(天)이요, 성정(性情)으로 말하자면 건(乾)이며, 주재(主宰)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상제(上帝)요, 오묘한 작용으로 말하자면 신(神)이라 하니, 그 이름도 다양하고 일컫는 것도 제각기이다. 또 이(理)와 기(氣)를 화로와 풀무로 삼고, 만물을 두루 펴내는 것을 조물이라고 하니, 이는 하늘을 마치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망치와 끌, 도끼와 칼 등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혼돈이란 그 빛이 검고 그 모양은 흙비가 내리는 듯하여, 비유를 하자면 새벽이 되었지만 아직 동이 트지는 않은 때에 사람이나 사물이 분별되지 않는 상태와 같다. 나는 알지 못하겠다. 캄캄하고 흙비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 냈을까. ㉡ 국숫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진다. 무릇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일 뿐이니,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 "뿔이 있는 것에게는 윗니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감히 묻는다.

"이빨을 준 건 누구인가?"

사람들은 대답하리라.

"하늘이 주었다."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빨을 주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씹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뜨락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해 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 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댈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에게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바 이치가 아니다.

대저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 배나 더한 것임에랴.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象)' 자를 취하여 지은 것도 만물의 변화를 궁구(窮究)하려는 까닭이었으리라.

-'상기'

9. Ⓐ에 보이는 논리적 오류 두 가지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 교과서 내용을 참고하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말 것.
• '두 가지 논리적 오류는 첫째 ~이고, 둘째 ~이다.'의 형식으로 쓸 것.

10.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 작가가 ㉡과 같이 비유를 사용한 이유를 논술하시오.

11. <보기>의 (ⓐ), (ⓑ), (ⓒ)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박지원의 '상기(象記)'가 창작되었던 당대의 사회에서는 하늘의 이치를 (ⓐ)하여 인간의 행동 양식과 자연 현상 하나하나를 모두 (ⓑ)의 이치와 결부시켰다. 모든 것이 하늘의 이치로부터 비롯된 (ⓒ)의 작용 아래 움직인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예외적인 법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12. 글의 내용 전개로 보아 ㉮를 통해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것과 ㉯를 통해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각각 서술하시오.

㉮

㉯

13. 윗글을 참고하여 작가가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된 대상과 작가의 성찰 내용, 그 의의를 서술하시오.

14. 윗글에서 글쓴이가 코끼리를 긍정적 관점에서 파악한, 코끼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찾아 쓰시오.

15. 이 글에서 작가가 문답법을 사용하여 밝히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간단히 서술하고, 목적격 조사를 사용하여 서술할 것.)

필수 유형

소재의 비유적 의미를 확인하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이면 먼저 선무문(宣武門) 안으로 가서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내가 연경(燕京)에서 본 코끼리는 열여섯 마리였는데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금 열하(熱河) 행궁(行宮) 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보니, 온몸을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하였다.

예전에 동해 바닷가를 새벽에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다. 무수히 많기도 하고 모두 집채만큼 크기도 하여,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 버렸다. 지금 열 걸음 거리에서 코끼리를 보며 생각해 보건대,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했다.

그 몸체를 생각해 보면 소의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 빛깔,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다. 귀는 구름을 드리운 듯하고 눈은 초승달 같으며, 두 개의 어금니 크기는 두 아름이나 되고 키는 한 장(丈) 남짓이나 되었다.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구부렸다 폈다 하며 굼벵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한다. 코끝은 누에의 끝부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족집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둘둘 말아 입에 집어넣는다.

어떤 사람은 코를 부리라고 착각하고 다시 코끼리의 코를 찾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가 다섯 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눈이 쥐와 같다고 하지만, 이는 대개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대체로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어진 성품은 바로 이 눈에서 나온다.

강희 황제 때였다. 남해자(南海子)에 사나운 범 두 마리가 있었다. 키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길을 들이기가 어렵자 황제가 노하여 범을 코끼리 우리에 가두게 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크게 놀라 코를 한 번 휘두르는 바람에 범 두 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 코끼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을 죽인 셈이 된 것이다. 코끼리는 단지 범의 냄새를 싫어하여 코를 휘둘렀을 뿐인데, 거기에 범이 잘못 맞았던 것이다.

아,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 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그러나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형체로 말하자면 천(天)이요, 성정(性情)으로 말하자면 건(乾)이며, 주재(主宰)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상제(上帝)요, 오묘한 작용으로 말하자면 신(神)이라 하니, 그 이름도 다양하고 일컫는 것도 제각기이다. 또 이(理)와 기(氣)를 화로와 풀무로 삼고, 만물을 두루 펴내는 것을 조물이라고 하니, 이는 하늘을 마치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망치와 끌, 도끼와 칼 등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혼돈이란 그 빛이 검고 그 모양은 흙비가 내리는 듯하여, 비유를 하자면 새벽이 되었지만 아직 동이 트지는 않은 때에 사람이나 사물이 분별되지 않는 상태와 같다. 나는 알지 못하겠다. 캄캄하고 흙비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 냈을까. 국숫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진다. 무릇 Ⓐ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일 뿐이니,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뿔이 있는 것에게는 윗니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감히 묻는다.

"이빨을 준 건 누구인가?"

사람들은 대답하리라.

"하늘이 주었다."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빨을 주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씹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뜨락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해 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 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댈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에게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바 이치가 아니다.

대저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 배나 더한 것임에랴.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象)' 자를 취하여 지은 것도 만물의 변화를 궁구(窮究)하려는 까닭이었으리라.

-'상기'

16. 이 글에서 '맷돌'이 비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17. 윗글에서 '맷돌'이 비유하고 있는 것(원관념)은 무엇인지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18. Ⓐ가 비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수능형 문제

1. <답> ②
[A]와 2번 선지에서는 비유법을 통한 묘사가 사용되었다.
①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③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④ 역설법과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⑤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2. <답> ①
[A]는 코끼리를 <보기>는 일출 광경을 묘사하였다.
② [A]와 <보기>는 모두 작가의 체험이 드러나 있다.
③ [A]와 <보기>는 모두 작가의 생각이나 감정이 드러나 있다.
④ [A]와 <보기> 모두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A]와 <보기>는 모두 비유적 표현이 드러나 있다.

3. <답> ③
윗글의 '나'는 통념에서 벗어난 인물이지만, <보기>의 '처신에 밝고, 자신의 총명만을 믿는 사람'은 통념에 사로잡힌 인물이므로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윗글의 '나'와 <보기>의 '나'는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났으므로,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윗글의 '나'와 <보기>의 '마음에 잡된 생각을 끊은 사람'은 통념에서 벗어난 인물들이므로,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윗글의 '사람들'은 통념에 사로잡힌 인물이고. <보기>의 '나'는 통념에서 벗어난 인물이므로, 전혀 다른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윗글의 '사람들'과 <보기>의 '귀와 눈을 믿는 사람'은 통념에 사로잡힌 인물이므로,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4. <답> ③
[B]와 3번에서는 문답법이 사용되었다.
① 반복법, 열거법이 사용되었다.
②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④ 구체적 수치와 인용을 활용하였다.
⑤ 예시를 활용하였다.

5. <답> ⑤
ⓐ는 문답법을 통해 '모든 사물에는 하늘의 이치가 적용됨.'과 같은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검증하고 있다.
① <눈에 보이는 코끼리도 이치를 모르는 것이 있음> - <천하 사물에도 우리가 이치를 모르는 것이 많을 것임>과 같은 관계를 유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② ⓐ와 ⓑ 모두 경험을 바탕하고 통념을 깨는 자신의 철학을 전달하기 위해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다.
③ ⓐ와 ⓑ에서 대상에 대한 상반된 정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④ ⓐ에서 심리의 변화를 통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과 ⓑ에서 심리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6. <답> ④
㉮는 문답의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형 표현은 있지만 설의적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① ㉮는 '사람들'을 ㉯는 '제자'를 설득하고 있다.
② ㉮는 불특정 청자인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만, ㉯는 특정한 '제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③ ㉮와 달리 ㉯는 이상적인 인간상인 '엄 행수'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었다.
⑤ ㉯와 달리 ㉮는 상대에게 질문을 반복하여 답을 하게 함으로써 모든 대상에 하늘의 이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

7. <답> ⑤
보기의 '개'는 사람들의 고정 관념이 깃든 대상이고 '이'는 그러한 고정 관념을 깨트리기 위해 활

용된 대상이므로, '개'는 '소, 말, 닭, 개'에 대응되고 '코끼리'는 '이'에 대응된다.
① [B]의 '사람들'과 <보기>의 '손'은 통념에 사로잡힌 사람들로서 현상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
② [B]의 '나'는 코끼리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사람들을 일깨우고, <보기>의 '나'는 개와 이의 죽음을 통해 '손'을 일깨우고 있다.
③ [B]의 '코끼리'와 <보기>의 '이'는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써 사용되었다.
④ <보기>에서는 코끼리가 범과 쥐를 만났을 때의 상황을 대비하여 고정된 관점으로 대상이나 현상을 인식하는 것의 불합리성을 지적했고, [B]에서는 '개'와 '이'의 대조적 예시를 통해 모든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8. <답> ⑤
ㄴ : 윗글에서는 비유와 묘사를 활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개성적으로 표현하였고, <보기1>에서는 '인간 세상이란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요. 인심이란 하나의 거대한 바람이다.'에서 비유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었다.
ㄷ : 두 글은 모두 문답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이끌어 내었다.
ㄹ : 윗글에서는 고정된 관점에서 벗어나 대상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보기1>에서는 일반적인 상식과 통념을 뒤집어 스스로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면 평탄한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배 위에서 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ㄱ : <보기1>에서 고전(古典)을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9. <답> ②
<보기>와 윗글은 모두 성찰의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쓰였다.
① 윗글은 <보기>와 달리 '사람들'에게 묻고 예상되는 답변에 다시 반박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문답식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③ 윗글과 <보기> 모두 작가의 여정을 통해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기행 수필에 해당한다.
④ 윗글과 <보기> 모두 적절한 비유와 묘사를 통해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감각적이고 실감 나게 전달하였다.
⑤ 윗글은 코끼리를 본 경험을 통해 획일적 이치로 만물을 바라보는 고정 관념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었고, <보기>는 창려현 문필봉을 오르는 경험을 통해 벼슬하는 자의 태도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었다.

서술형 문제
1. <답> 직유, 묘사, 열거, 묘사

2. <답> (1) 문답법을 사용하였다. (2)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깨닫게 한다.

3. <답> '상기'는 코끼리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작가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문답법을 통한 가설의 재반박 등 개성적인 문체를 사용하여 교술 갈래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4. <답> 문답법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밝히고 있다.

5. <답> (1) 문답법 (2) 모든 사물에 하늘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6. <답>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코끼리의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 문답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효과적으로 밝히고 있다.

7. <답> 문답법

8. <답> (1) 문답법 (2) 고정 관념

9. <답> 두 가지 논리적 오류는 첫째 대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고 대상을 왜곡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고, 둘째 기존의 선입견이나 고정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대상을 잘못 인식하는 것이다.

10. <답> 사람들은 모든 사물의 근거를 하늘에서

찾는데, 작가는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맷돌에 비유하여 하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11. <답> ⓐ 절대화 ⓑ 하늘 ⓒ 이

12. <답> ㉮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늘의 의도와 이치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 하늘이 사물을 만들 때 나름의 의도를 반영하였다.

13. <답> 코끼리 / 하늘의 이치를 절대화하여 모든 것을 하늘의 이치와 결부시키는 당대의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 작가의 성찰은 당대의 지배적 통념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4. <답> 그 어진 성품은 바로 이 눈에서 나온다.

15. <답> 작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 모든 사물에 동일한 이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한다.

16. <답> 하늘

17. <답> 하늘

18. <답> 하늘

서지정보
저자 이재균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2295-8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2.01.24
가격 1500원